

“내부모 모시듯 노인께 점심공양”

교계 ‘관음의 집’ 등 10여곳 운영...효·불교사회화 실천

낮 12시가 가까워지면 서울 강동구 길동지역 노인들은 하나둘씩 ‘관음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무료로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관음의 집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지난달 2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노인무료급식소·관음의 집을 이용하는 노인은 하루 평균 1백여명.

대부분이 점심을 차려줄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들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만종빌딩 지하에 마련된 관음의 집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이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부처님 모시듯 노인모시는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근 2~3년새 교계에 노인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확산되고 있어 외로운 노인들의 노후를 부처님 품안에서 회향하고 불교사회화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계에는 현재 관음의 집을 비롯 10여개의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민운동차원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전개해온 경복련은 지난 93년부터 상계동과 미아동에 지비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복련은 현재 부산지역 지비의 집 건립을 추진중이기도 하다. 또한 경주 분황사가 불교사와 지역 신행단체의 협조아래 무료급식

소를 운영중이다. 이밖에 조계사 청년회가 서울 탑골공원에서, 부산 대각사 청년회가 용두산 공원에서 밥과 국수등의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계 위탁 복지관에서도 노인무료급식이 확산되고 있다. 길동종합사회복지관과 삼천복

지관들은 이전의 일반적 제공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주일에 1~2회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점심공양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무료급식소 외에도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등 각 사찰에서도 오래전부터 무료로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왔다.

자비의 집 신용공충무는 “교계의 무료급식소는 전체 무료급식소의 5%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기존의 사찰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점심무료공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노인 무료급식사업 확대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의 보리수가 한국에 왔다. 구말니비 이치르 인도 민한 및 관광성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마야외티 인도 U.P.주 주지사(오른쪽) 일행은 지난 5일 서울 구름사에서 부다가야 보리수 묘목 1그루를 구름사주지 정우스님(왼쪽)에게 기증했다. 이 보리수 묘목은 불보살왕 동도사에 이식된다. 이날 보리수 기증식에는 아소크팔와 인도 관광청장(왼쪽 두번째)과 사산크 주한 인도대사(중앙) 등이 동참했다. (관련인턴투어 14면)

“일부 언론 ‘마리산’ 표기 주민 반발”

강화 마리산을 일부 언론에서 ‘마리산’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마리산 정기 계승발전보존회 박덕성회장은 “조선일보(9월25일자 15면)와 문화일보(10월3

바꾸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강화 마리산 지명개명용 기독교계통 단체로 알려진 마리산 이름 되찾기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개명, 지역주민과 불교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본지 47호 15면 보도)

석왕사 유치원 가족운동회 2천여명 참석

“하나 둘, 하나 둘” 발목을 띠고 두른 창군·백군이 구호에 맞춰 한데 어울려 손을 맞잡고 숨가쁘게 반환점을 돌아

“동심속에 엄마·아빠 불심 키워요”

이 한마디를 외치며 뛰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필)

은 뜻이 온통 흙 투성이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 롬바니유치원 ‘가족운동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대로군(6선화반)은 “매일 오빠 같으면 좋겠어요”라며 오빠 이준기씨를 보여 줘주길 바라고 있다.

과도타기를 끝으로 퇴장하는 운동장의 하늘엔 청뿔·백뿔을 외치는 2천여명의 어린이, 엄마·아빠의 불심어린 동심이 종종히 수를 놓는다. (필)



◇2천여 롬바니유치원 가족이 참여한 ‘가족 운동회’는 어린이는 물론 엄마·아빠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 수해복구 지원금 실천승가회, 모금운동

실천승가회(공동회장 청화·지선스님)가 오는 14일까지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금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실천승가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1차 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모금한 지원

경주 역세권 141만평 “훼손 불보듯”

건교위 위원들 國監서 고속철 노선 전면 재검토 요구

고속철도관리공단이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도심 통과와 함께 추진중인 경주 남산 일대의 역세권이 무려 1백41만평(입주 예정인구 5만명)에 달해, 고속철 경주도심 통과가 강행될 경우 문화재 관리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신승범 한화감리원(국민회) 등은 “경부고속철도 공사 계획 자체에 무리가 많고 경주 도심통과는 문화재파손의 우려가 높다”며 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주동식 문체부장관은 지난 3일 포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경부고속철 노선을 경주를 통과시키지 못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건교부 등 관련 부처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확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교련 6개 지부·지회 추가 ‘조직강화’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지난2일 공주·부여 등 6개의 지부·지회를 추가승인하고 조직강화에 들어갔다.

이번에 승인된 지부는 공주(지부장 황성) 남원(지부장 정도) 보령지부장 정운)이며, 이는 지난 부여(지회장 정민) 산(지회장 성풍) 연기(지회장 작인)이다. 이로써 청교련은 총 16개의 지부와 지회로 늘었다.

한편 부산 창원 여수지역에서도 청교련 활동을 위한 지

장기기증자 천도재 봉행

생명공양실천본부, 14~15일 수덕사서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는 오는 14일~15일 수덕사에서 장기기증자와 회원을 위한 천도재 및 수련대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번 천도재에서는 그동안 사신을 기증한 4인의 영가명복을 받고 그들의 뜻을 기리게 된다.

첫 포교사고시 29일 실시

조계종, 39개 등록대학 졸업생 대상 21일 마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9일 서울·부산 등 전국 7개지역에서 첫 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교원에 따르면 이번 포교사고시는 전국 39개 종단등록 불교대학졸업자와 96학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적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포교원 관계자는 “지난달 포교원이 발행한 포교사고시에상 문제집에서 문제를 발췌하며 70점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16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선원사 19일 대웅전 기공

팔만대장경 관각지로 알려진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가 오는 19일 대웅전 기공을 시작

으로 본격 복원불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건립하는 선원사 대웅전은 지하 43평 지상 34평 전통사찰양식으로 오는 2000년 완공예정이다.

중앙승가대 이전 대책위 구성

조계종 118회 총회

지난달 28일 속개된 조계종 제118회 임시총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이전과 관련 총회 교육원 총무원 승가대이사회를 포함한 15인 ‘중앙승가대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폐회됐다. 또한 소책자마을 인주소영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중앙승가대학장 송산스님이 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소책자마을 인주소영 총무원과 승가대 이사회가 인주소영 전반을 검토, 인수결정 여부와 향후 대책을

위원장에 정휴스님

중앙승가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첫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정휴스님, 간사에 향적스님을 선출하고 5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정휴 성문 법승 향적 현운스님 등 5인 소위는 6일 모임을 갖고 승가대 이전등 정상화와 발전에 관한 활동방향을 토의한다. (5일 현재)

한편 중앙승가대는 동문 교직원 학인 등으로 수습대책위의 회의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학내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과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사를 표명했다. 대책위의 회의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향적스님 사표 반려 △중앙승가대 대책위 재구성 △동국대 경주분교 승가학과 철학 등을 요구했다.

11개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위촉

중단협 이사회, 한·중·일 우호회의 연락위 소집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남북수재민 돕기 의연금 모금 △각 위원회 설치 △한중일 불교 우호회의 연락위원회 소집 △정관보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남북 수재민돕기 의연금 모금은 조계종에서 2천만원 그외 종단에서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10월10일까지 모금기로 했다. 또한 종단협력위원회 남북교류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11개 위원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 복 돼지해 윤달

최고의 윤달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25일부터 윤(閏)8월

오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을해(乙亥) 윤(閏)8월이다. 장의용종 업계에는 수의(壽亥)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반면 예식장 및 이삿짐업체는 예약이 끊겨 울상이다.

을해는 60년만에 찾아 온 을해(乙亥)년 “복 돼지해, 하늘과 땅, 남녀 등 모든 음양이 합일(合)을 이뤄 을해 낳는 신생아들은 최고의 사주팔자를 지니며, 윤달이 걸리거나 이사를 하던 해였고, 수의를 마련하던 재물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중 윤달이 든 해에는 집안의 연로하신 어른께 효심을 전하기 위해 수의를 지어 올리는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병장수하시리라 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디. 세월은 흘러 세상은 변해도 노부모님에 작은 소망은 누구나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서술신문 95.9.18 보도내용)



수의 가격 조건표

품명	시중가	행사가	비고
종4호(마)	1,640,000	350,000	일반품
종3호(천연마)	1,360,000	680,000	천연마 100%
종2호(보성포)	1,960,000	980,000	대마 수재, 순향 강포
종1호(특산심배)	4,500,000	2,200,000	특산단지 지정품, 특대마 100%

※택으로 방문하여 종류별 비교하여 드립니다.



전 회원에게 리무진 이용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고급제품은 검 심베로 제작됩니다.

남자 197지, 여자 187지 갖는 수의입니다.

본(주)원품 수의는 특허청 외장등록 제159132호로 등록되었으며 농어촌 특산지에서 생산된 고급제품으로 품질이 보증됨.

장례 토탈 서비스 안내

갑자기 상을 당해 당황하는 상주님들을 위하여 임종에서 장지까지 전과정을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합니다.

** 서비스 안내 **

- 국내최초 장례무료 상담전화 개설운영 24시간
- 장례행사 대행(전국제인연결) ■ 묘지상담알선
- 파출부, 도시락(음식)알선
- 현재 평생회원제도 운영중(91년시행)

※(주)원품은 손상에 전문업체입니다. ※수의판매 이익금 일부로 무의탁노인, 청소년회원, 병소녀처 사망시 수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p>전국취급점모집</p> <p>공휴일 및 주·야 24시간 전화상담받습니다.</p>	<p>본사영업부</p> <p>(02)566-7676</p> <p>종로-3673-5226</p>	<p>광역시</p> <p>부산 대인 462-3562</p> <p>광주 361-1349</p> <p>대전 627-9575</p>	<p>경기도</p> <p>수원 216-6336</p> <p>고양 913-2181</p> <p>원주 915-4097</p> <p>구리 557-2166</p> <p>성남 721-5782</p>	<p>부천</p> <p>323-6484</p> <p>분당 이천 (0342)756-8841</p> <p>임산 파주 (0340)977-0031</p> <p>김포 김화 (0341) 82-2818</p> <p>안양 61-0336</p> <p>안산 80-6690</p>	<p>의정부</p> <p>876-8872</p> <p>충청도</p> <p>655-0966</p> <p>강원도</p> <p>충청도</p> <p>582-3612</p> <p>545-1533</p>	<p>원주</p> <p>충청도</p> <p>582-3612</p> <p>545-1533</p> <p>충청도</p> <p>582-3612</p> <p>545-1533</p>	<p>대전</p> <p>85-5130</p> <p>452-0386</p> <p>832-1944</p>	<p>경상도</p> <p>0652-231-7694</p> <p>053-8511</p> <p>053-8511</p> <p>053-8511</p> <p>053-8511</p>	<p>경기도</p> <p>031-58-3023</p> <p>경기도</p> <p>031-58-3023</p>	<p>(주)원품</p> <p>TEL 566-7676</p> <p>제1공정 관주(주)반 서</p> <p>제2공정 (특산단지)본산공 담교음 어로리</p>
---	---	---	--	--	---	--	---	--	---	--